

[발표 1]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는 어머니와 성인자녀의 가족치료 사례
- 홀어머니와 큰아들 간의 갈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분석 -
“우리는 주머니 받거나 하는 대화가 안 돼요”

박태영(숭실대)
김태한(숭실대 박사과정)

I. 서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홀어머니와 큰아들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를 다루고 있다. 치료에 의뢰된 초기문제는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 전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서 발생하는 모자간, 부부간, 고부간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와 큰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 가족의 미분화된 자아군, 하위체계 간의 명확하지 못한 경계선과 같은 가족체계의 역기능적 특성들이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가족체계의 특성이 가족 갈등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이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재구조화되는 과정과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MRI의 의사소통이론
2. Bowen의 가족체계 이론
3. Minuchin의 구조주의적 가족치료 이론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가족상담은 2006년 10월 9일부터 2007년 1월 19일 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치료 개입이 실시된 가족구성원은 어머니(55세), 큰아들(32세), 며느리(32세), 딸(30세), 막내아들(27세)이며, 필요에 따라서 개별상담 및 가족 상담이 병행되었다.

2. 연구 질문

- 첫째,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 둘째, 갈등의 변화를 유도한 치료자의 역할 및 기법은 무엇인가?
- 셋째, 가족의 재구조화된 내용은 무엇인가?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부터 13회기 까지 나타나고 있는 반복되는 개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의 방식과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삼각화(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개념들의 지속적인 비교의 방식은 1회부터 13회기까지 진행되는 상담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개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삼각화 방법으로서, 상담의 축어록과 치료자가 상담을 하면서 기록했던 메모를 참고로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써 가족상담 축어록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과 가족관계의 회복의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질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질적인 연구방법들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단일사례연구의 방식을 사용하며, 상담축어록과 상담 시에 기록된 메모를 원자료로 하여 개방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개방코딩을 중심으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계를 발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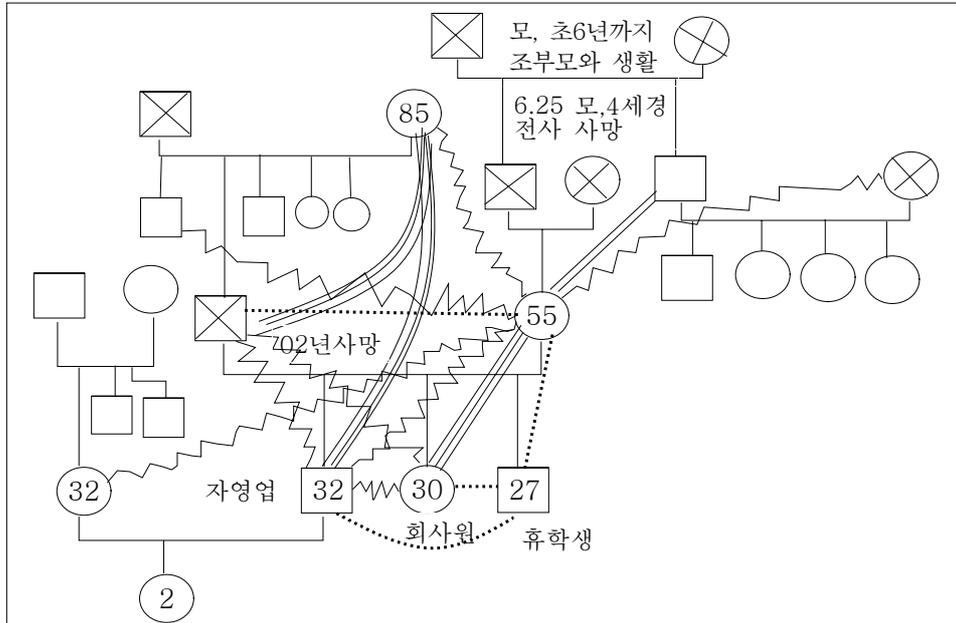
5. 가족의 문제력

2002년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대학생이던 큰아들은 혼자 장례식과 사업체 정리를 하면서 카드빚을 졌다. 또한 졸업 및 취업준비를 하면서 학원강사일도 그만두고, 카드빚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대기업에 취업하였지만 자신의 돈으로 물품을 선구매하고 파는 방식의 일을 하는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빚이 늘기만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계하고자 용자를 얻어 부동산을 샀지만 중도금이 없어서 여동생의 돈과 시골 땅을 처분한 돈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여동생이 시집가고, 남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큰아들은 결혼을 하였고, 분가를 하였다.

어머니는 월 30만원으로 살림 살았던 근검절약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빚을 못 갚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사업으로 채무에 시달리던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큰아들이 빚을 갚는데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빚내어 부동산을 구입한 데 하여 실망하였다. 또한 반대하던 결혼을 감행하고 분가해버리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 계속 빚을 만드는 큰아들의 태도가 결혼 전 사귀었던 여자 친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 이면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즉 어머니는 비난 및 부정적 표현방식을 사용하였고, 아들은 무시와 회피 그리고 분노폭발의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결국 서로에게 부정적 감정을 남기고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 가계도



IV. 연구결과

1. 개방코딩

개방코딩에서 37개의 하위범주, 12개의 중간범주, 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념추출과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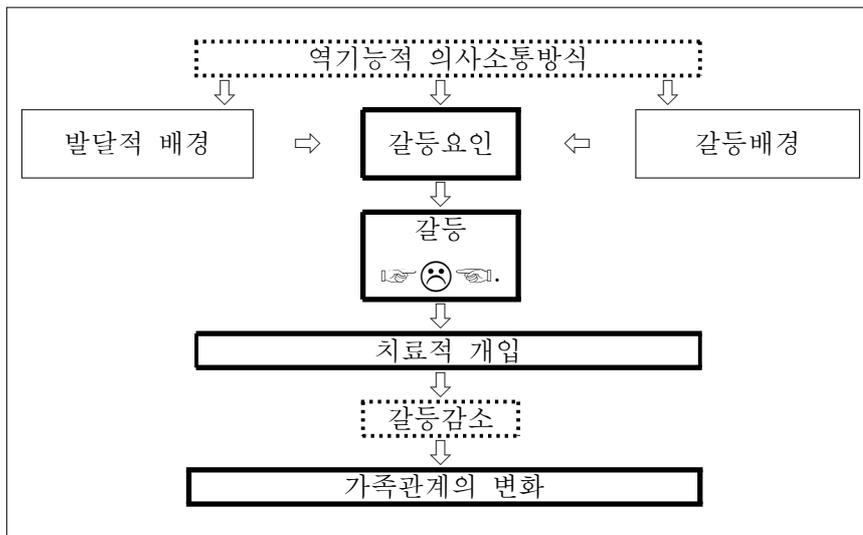
| 개 념 | 하위 범주 | 중간범주 | 상위 범주 |
|---|----------------------|---------------|-----------|
| 소리치고 문을 팡닫고나감. 전기장판을 들썩거림, 냉소적인 비난 등 | 모자간 대화가 감정싸움 | | 갈등 |
| 아들빛의 원인, 큰아들의 괴로움, 며느리가 싫어함 등 | 며느리에게 아들의 옛 애인이야기를 함 | | 갈등요인 |
| 아들의결혼, 동생들을 돌보지 않음, 할머니를 모시려함 등 | 가장역할을 안함 | 어머니 불만 | 갈등배경 |
| 어머니의 근검절약, 빚지면 안됨, 아들이 빚을 못갚음 등 | 아들의 채무 | | |
| 아버지의 빚이 많았음, 경제적 불안정한 생활, 생활비를 조금받음 등 | 아버지의 채무 | 아들불만 | |
| 영업방식을 모름, 어머니갓대로 비교, 말해도 이해못함 등 | 채무상황을 용납못함 | | |
| 큰아들에 대해서 비난함, 대우를 받을 자격, 큰아들의 역할 등 | 장남의 권위를 안세움 | | |
| 조부의 무서움, 숙부의 거친표현, 숙모의 눈치춤, 대화없는 숙부모 등 | 어머니 원가족 의사소통 |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 | 가족 발달의 배경 |
|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들음, 대화를 잘안함. 감정을 표현못함, 부정적 어투, 화나면 침묵, 같은 소리 반복, 강요하는 방식 등 |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 | | |
| 명령적 어투, 부부간 대화가 없음, 거절하는 편, 말을 주도함 등 | 아버지의 의사소통 방식 | | |
| 자세히 말안함, 뒤늦게말함, 참다가 폭발, 말이 별로 없음, 문팡닫고 나가버림 등 | 큰아들의 의사소통방식 | | |
| 필요한 것만 말함, 신경질, 형제들과 대화없었음, 화나면 침묵 등 | 딸의 의사소통방식 | 경계선의문제 | |
| 집에서 말안함, 밖에서 사교적, 필요한 것만 말함, 거절을 예상함 등 | 작은아들의 의사소통방식 | | |
| 큰아들 역할, 할머니의 의존도, 형제를 우선시 | 아버지의 할머니 밀착 | 자이분화 | |
| 한 달에 한번씩 자리감, 할머니에 대한 애잔함과 의무감 등 | 큰아들의 할머니 밀착 | | |
| 아들 밥주지 말라함, 정식직원아니면 헤어져라, 남의식 안함 등 | 어머니의 모호한 경계선 | 자이분화 | |
| 큰아들, 딸에 대한 배신감, 사업에대한 불안감, 나를 위해 돈뭏씀 등 | 어머니의 미분화된 자아 | | |
| 집에 들어가기 싫음, 어머니를 안보기로 결심, 어머니로 인정못함 등 | 큰아들의 정서단절 | 자이분화 | |
| 딸을 너무 감싼, 제일 가까움, 가족 위해 희생함, 엄마의 감정대변 등 | 어머니와 딸의 삼각화 | | |
| 어머니에 대한 불안감, 초치는 느낌, 말하기 싫음, 절약스트레스, 납득안되는 표현을 대변함 등 | 자녀/며느리와 동맹 | 치료적 동맹형성 | 치료적 개입 |
| 아버지와 유사한 큰아들 모습, 등 | 어머니와동맹 | 의사소통 방식의코치 | |
| 차단되는 느낌, 상대방의 표현을 받아줌, 차단의 제지 등 | 적극적 경청 | | |
| 쌓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 사소한 것을 나눔 등 | 사실적,구체적 표현 | 원가족탐색 및 패턴조명 | |
| 미운감정, 섭섭함, 서운한 감정의 표현, 자기감정의 인식 | 불편한 감정의 표현 | | |
| 작은어머니의 방식을 닮음, 외숙부집의 영향 등 | 어머니의 원가족 | 재명명 | |
| 화날 때의 표현 방식, 사업에 대한 불안, 참았다고 폭발하는 방식, 대화법을 못배우고 자란 점 등 | 현재가족의 패턴 | | |
| 사람이 아니라 표현방식의 문제, 돈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 등 | 비유법 | | |
| 남 탓하는 부부, 나쁜 표현법, 돈쓰는 것이 가까운 어머니 등 | | | |
| 관심가지는 표현, 감정을 자제함, 다정한 표현, 이해려는 노력, 좋게 말함 등 | 의사소통의 방식 변화 | 기능적 의사소통 의활성화 | 가족 관계의 변화 |
| 대화하려고 의도적 노력, 사소한 것도 말함 | 대화의 양적 변화 | 인식변화 | |
| 서운함, 격려와 위로가 필요, 큰아들의 본심, 화내는 것의 무서움, 어머니의 표현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 | 솔직한 감정전달 | | |
| 어머니의 표현방식을 자녀들이 답습, 합의가 안됨, 서로 안들어줌 등 | 순환적패턴인식 | 자이분화 | |
| 여동생의 슬픔, 자녀의 불만, 어머니의 본심과 감정, 오빠느낌, 누나의 스트레스 등 | 타인입장이해 | | |
| 사회복지공부시작, 밥값냄, 자기성찰, 감정인식, 타인감정 배려 등 | 어머니의 자이분화 | 경계선 | |
| 외식함, 딸과 며느리관계회복, 형제간 대화많음, 고민의 논의 등 | 형제하위체계강화 | | |
| 오빠에 대한 이해, 자기고민의 표출 등 | 여동생의 유연한 경계선 | 경계선 | |
| 옛 여자친구 이야기를 안함 | 어머니의 명확한 경계선 | | |

2. 가족치료의 과정

1) 패러다임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패러다임 모형도>



V. 결론

본 연구는 홀어머니와 큰아들의 갈등을 가족치료로 해결하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조명하였다.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들이 문제를 오히려 지속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비효과적인 방법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는 가족들이 변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기능적으로 바뀌면서 가족들의 상호작용도 긍정적이고 활성화되었다. 또한 원가족의 탐색과 패턴에 대한 인식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순환되는 갈등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행동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